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면접평가 대비

전북교육청, 교사·학생 대상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제시문 기반 면접 이해 연수 도입... 대학별 교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면접평가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사와 학생에게 고난도 면접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사의 면접 지도 역량과 학생의 준비도를 강화하고, 대학별 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사 대상 면접 지도 역량 강화 △학생 대상 모의 면접 제공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MMI포함)'을 운영,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면접 대비를 돕는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방식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논리적·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사 연수가 24일 오후 6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장한별 대입지원관(전주진로진학센터), 손선열 대입지원관(남원진로진학센터)이 강사로 참여해 대학 평가자의 시각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과 '의약학계열 면접평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대부설교 박상용 교사가 '학교에서의 면접 평가 지도방안'이라는 주제로 면접 컨설턴트의 역할과 현장 중심의 지도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29일 오후 6~9시 '제시문 기반 면접 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연수가 진행된다. 인문·사회·자연·공학·MMI(Multiple Mini Interview, 다중 미니 면접) 등 계열별 제시문 면접 대비 특강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강사로는 윤경아 오창고 교사와 장지환 배제고 교사가 참여한다.

10월에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10월 15일 오후 5~7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특강에는 최승후 대학교 교사가 강사로 나서 '제시문 기반 면접 평가의 이해와 전략'에 대해 안내

하고, 10월 18~19일에는 대면으로 '제시문 기반 및 MMI 모의면접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별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해 60여 개의 학교를 직접 방문, 면접 특강과 모의면접을 지원한다.

현재 단위 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학교가 많은 경우 읍·면 지역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은 의대 정원 원복과 무전공학과 신설 기조 유지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설명회, 모의면접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성과

전북대 송제호 교수, 기술협력 유공 근정포장

전북대학교 송제호 교수(융합기술공학부 IT응용시스템공학전공)가 기술협력 유공자에 선정,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송 교수는 23년간 융합기술공학 분야에서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이끌며 IoT, 인공지능, 전자 및 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하베스팅 헬스케어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실용적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산학 공동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냈다.

중소기업 지원 성과도 눈에 띈다. 최근 14건의 기업 협력 연구개발 과제와 12건의 기술지도를 수행하며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IoT 기반 스마트팜 공조 시스템, 산업재해 예방 센서, 무선형진기 생산 공정 개선 등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어 산학연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보행장애인 자율주행 보조기기, 지게차 안전센터 모듈, 환자용 배변리프트, 스마트팜 등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을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9건, 기술이전 8건을 달성하며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켰다. 이전된 기술들은 자율



주행, 재해 예방 시스템, 의료기기, 스마트 센서, Io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화로 이어졌다.

특히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 컨설팅센터장, 전북 산학연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중장기 기획 및 R&D 운영, 평가위원 활동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 마련에도 기여했다.

송제호 교수는 "산학연 협력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23일 남원시가족센터와 손을 맞잡고 한국어학당 설립을 구체화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글로벌캠퍼스 한국어학당 설립 구체화

전북대, 남원시가족센터와 협약... 캠퍼스 완공 전까지 이음센터서 지역 외국인 대상 교육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남원시가족센터와 손을 맞잡고 한국어학당 설립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23일 열린 협약식에 전북대 조화림 국제처장, 김태연 언어교육부처장과 나찬도 남원시가족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어학당 설립과 운영 협력을 통해 남원시 지역 외국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내에 한국어학당 개설과 지역 정주 외국인·다문화 가정·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남원 글로벌캠퍼스 완공 전까지는 남원시 이음센터를 거점으로 외국인 대상 특강을 운영하는 지역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 교육을 운영하고, 전북대-남원시-남원시가족센터 간 전방위 협력체제도 가동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실제 교육이 운영되는 남원시 이음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914㎡ 규모

의 복합건물로, 현재 남원발전연구소와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글로벌캠퍼스에 새로 개설되는 글로벌캠퍼스학과, 한국어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는 지역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시가족센터협회의 협약이 집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면, 오늘 남원시가족센터와의 협력은 그 집을 든든히 떠받칠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홋카이도대학
한·일 치과혁신 포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미경)은 일본 홋카이도대학 치과대학과 '한·일 치과혁신·협력포럼'을 겸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양교가 1990년 자매결연을 맺은 지 35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그간 이어온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양교 동창회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 교류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년 단기 연수와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 학생들에게 학문적 배움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전공특화 프로그램으로 연계돼 더욱 내실 있고 중성하게 행사가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아미즈카 홋카이도 대학 치과대학 학장과 유미경 전북대 치과대학 학장은 양교 간 학술 교류와 친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하반기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분청 과장급 이상 간부진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9월 1일자 신규 고위직 발령자, 상반기 미이수 고위직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 사안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대응, 2차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4개 시군별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강양원 문예건강과장은 "교육주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지전대, 하반기 야외
진로·취업 상담 페스타

전주지전대학 대하일자리플러스센터는 23일 교내 종합행정동 입구 옆 야외부스에서 '하반기 야외 진로·취업 상담 페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들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방향설계를 구체화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 프레디저(직업흥미적성검사) 진단 및 해석과 입사지원서 컨설팅, 채용 정보 안내,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단순한 취업 준비 과정을 넘어 필수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감을 갖추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변화하는 사회와 취업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현관에 조성된 '청렴 편(Fun)한 공간'.

‘함께하는 청렴 문화 조성’

전북교육청, '청렴 편(Fun)한 공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현관에 '청렴 편(Fun)한 공간'을 조성, 오는 26일까지 직원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테마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청렴 편(Fun)한 공간'은 네 가지 코너로 구성됐다.

먼저 '청렴 공모전 갤러리'에서는 2025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총 20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내마음의 낙서장'은 직장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희망 사항을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청렴 사진관'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찍고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며, '청렴소식알리미'는 청렴도 평가 안내 배너를 설치해 청렴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같은 기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렴소식알리미'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장은성 기자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의 첫걸음”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기자회견서
아동 안전 특별법 제정·전담기구 신설 등 제시

"안전한 등·하굣길이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노병섭 대표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연대를 통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4년 6개월 간의 교사 생활 경험을 토대로 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동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신설 △정규 교육과정 속 안전교육 강화와 모의훈련 정례화 △시니어 클럽 및 퇴직교사 중심 방범 자율대 활용 △마을 단위 안심귀가 거점 지정 △범죄 노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병섭 대표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위해서는 교



육청, 경찰,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퇴직공무원 인적 자원 적극 활용, 학생안전 강화

전북교육청,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보조인력은 버스 승·하차 지도, 도보 이동 시 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 지원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와 협력해 퇴직공무원 742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 인력풀도 새롭게 구성했다.

이 중 경찰·소방·교원 등 안전경험이 풍부한 308명은 안전요원으로 등록되며, 이들은 개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434명은 전북교육청 주관 기본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기타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기타보조인력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위탁해 진행 중이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와 역할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 보조를 담당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교육청은 3차 수요조사를 통해 연내 운영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 기타보조인력 활동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퇴직공무원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부설초 상록소리새창창단
꽃심동요제 대회 '대상' 수상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소리새창창단은 지난 20일 전주 치명자산성씨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1회 꽃심동요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록소리새창창단은 '꽃마음'을 노래해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큰 감동을 줬다.

단원 대표 학생은 "함께 연습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 노래했을 때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